

## 목포대·순천대, 통합 전격 합의... '통합의대' 설립 속도 낸다

전남 동·서부 화합 도민 의료 기본권 실현 '대승적 결단'  
2026년 통합대학 출범...2026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신청  
'의대 추천공모' 폐기 수순...25일까지 통합의대 정부 제출

국립목포대학교와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송하철(오른쪽)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학교 총장이 대학 통합 합의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순천대학교 제공>

이에 따라 그동안 투트랙으로 진행돼 온 전남권 의대 설립 대학 추천 공모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며, 전남도는 오는 25일까지 통합의대 방안을 정부에 의대 설립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송하철 목포대 총장과 이병운 순천대 총장은 지난 15일 저녁 지역의 화합과 미래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며 '대학 통합'과 '통합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합의를 성사시켰다.

양측은 대학 통합 과정과 의과대학의 설치·운영 등 모든 면에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동등한 조건을 바탕으로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설립을 추진하며 전남 동·서부 도민 모두가 의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의료 체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지역을 대표하는 2개 대학의 통합은 도민의 의료복지 향상 뿐만 아니라, 정부의 '1도 1국립대' 기조에 선제 대응하고 글로벌 30 대학 간 협력과 캠퍼스별 특성화를 통해 '초일류 거점대학'으로 성장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대학은 2023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2024년 12월까지 대학 통합 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또 2026학년도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통합대학 명의로 예비인증평가를 신

청하는 등 전남도와 양 대학교가 책임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는 전남도의 전폭적인 지원과 헌신적인 노력 속에서 이뤄졌다. 전남도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통합대학 출범을 신속히 지원하고 곧바로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대 신설이 이뤄질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양 지역에 대학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향후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통합 및 통합 의대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병운 국립순천대 총장과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은 "이번 합의는 전남 동·서부 간 오랜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는 180만 도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간절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 총장은 "지금까지 믿고 응원 해주신 양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의 협상 과정은 물론 앞으로 통합 실무 준비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히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총장은 "그동안 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준 양 지역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원과 협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의과대학 신설 약속을 이행할 때"라며 "전남도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 용역사의 의대 신설 정부 추천 대학 공모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이번 주중 양 대학이 통합의대 합의서와 대학 통합 계획서를 용역사에 제출하면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검토 후 최종 설립안으로 확정짓는다. 이후 평가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뒤 전남도가 늦어도 25일까지 정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2026학년도 통합의대 정원 배정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평가원 예비인증평가도 오는 29일까지 통합대학 명의로 신청한다. 다만, 교육부가 정한 기한 안에 구성원 의견 수렴, 찬반표결 등 요건을 충족 못한 대학이 있을 경우 요건을 갖춘 대학이 통합의대 정원을 우선 배정받되 교육부 요건을 보완하면 통합대학으로 정원을 배분할 계획이다. /영시원 기자



노랗게 물든 가을 기운이 뚝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광주 남구 원산동 포충사를 찾은 한 가족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아래서 늦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예리 기자

광주·전남 '첫 한파특보'  
오늘부터 일부지역 영하권

광주·전남지역에 첫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주 일부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를 기해 담양·곡성·구례·장성·순천·완도·영광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한파특보 중 주의보는 전남보다 최저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 영상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영하 12도 이하의 최저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발효된다. 경보는 전남보다 15도 이상 하강할 때 등이다.

18일 최저기온은 나주·담양·화순·곡성이 영하 1도로 가장 춥겠다. 나머지 지역은 0-5도 예상됐다.

19일에는 곡성·보성 영하 2도, 나주·장성·담양·화순·영광·함평·영암·구례·해남 영하 1도 등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는 지역이 전남보다 더 많았다. 나머지 지역은 0-7도다.

20-24일 최저기온은 평년(1-6도)과 비슷한 0-9도로 예보됐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18일 아침 기온은 17일보다 10도 내외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명 기자

## 이재명 '징역 1년 집유 2년'...확정시 대선출마 불가

'김문기와 골프 안했다'·'백현동 협박' 허위발언 인정 유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없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관련기사 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원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차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며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해외출장 사진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물렸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유무죄에 해당한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차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사건	형의	판결 일자
대장동 개발 비리	특정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11월 15일 기준 총 7개 사건 4개 재판
1 백현동 개발 비리	특정법상 배임 옛 부패방지법 위반	9월 30일 결심 공판 징역 2년 구형
1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옛 부패방지법 위반	11월 25일 선고 공판
성남FC 불법 후원금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9월 20일 결심 공판 징역 2년 구형
2 검사사칭 위증 교사	위증 교사	11월 15일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 20대 대선 허위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뇌물	9월 20일 결심 공판 징역 2년 구형
4 생방송 대북 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11월 15일 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변경은 의무사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국토부로부터 의무사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서 한 발언에 대한 기소는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 선거법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연합뉴스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전라남도

## 전남 인기 체험상품 1+1 이벤트

목포 해상케이블카  
여수 녹테마레  
담양 딜라이트  
강진 가우도 줌트랙 등

마감임박!!  
예산소진시 종료!!

자세한 내용은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에서 확인하세요!

## 2024 남도숙박할인 BIG 이벤트

전남 숙박업소 이용 시  
1일 최대 4만원 할인  
(5일 최대 20만원 할인)

iOS·안드로이드